



국제정치와 알제리 문화담론의 재구성*

윤성원 / 한양대학교**

김성수 / 한양대학교***

한글 초록

본고는 알제리 정체성을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알제리 정체성을 형성하는 정치문화와 정치이념(이데올로기), 역사를 연동해 분석한다. 알제리 사례분석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알제리는 현대 국제정치이론이 노정하는 인식론적 빈약성에 대한 도전의 기류를 지속·확장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기능한다. 알제리 정체성의 분기 과정 분석은 비유럽지역의 객체화 문제, 물질·구조 중심의 기존 국제체제 분석 경향이 지닌 문제를 재차 드러내고 문화적 접근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둘째, 알제리가 내포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이다. 본고는 알제리 정치문화가 국제체제 변화 구도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알제리의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억이 행위자들에 의해 폐쇄, 조작, 강제되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문화담론에 대한 종합적 이해 없이는 국제관계에 대한 전체론적 분석은 요원하며, 국제체제 분석에 있어 문화담론을 포함한 ‘해석적 포괄성’을 지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제어: 국제정치, 문화담론, 알제리, 정체성, 정치이념

* 본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70773).

** 제1저자,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 연구교수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I. 서론

알제리적(的) 국제정치란 무엇인가?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알제리가 지니는 정체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아랍 국가인가? 제3세계 국가인가? 냉전 시기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한 동구권 국가였다면 현대 알제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탈냉전기 알제리가 담지해온 복합적 정체성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MENA)에서 미국의 상대적 쇠락과 어떤 형태로 맞물릴 것인가?1) 산발적, 지엽적으로나마 민주체제로의 이행을 지속해온 알제리 정체성의 변화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알제리적 국제정치는 규정할 수 없는 ‘무엇’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 ‘무엇’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무엇’이 국제정치에서 지니는 이론적·실제적 함의는 무엇인가? 왜 알제리인가?

본고는 알제리 정체성을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즉, 알제리 정체성을 형성하는 정치문화와 정치이념(이데올로기), 역사를 연동해 분석한다. 알제리 사례분석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알제리는 현대 국제정치이론이 노정하는 인식론적 빈약성에 대한 도전의 기류를 지속·확장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기능한다. 인식론적 빈약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국제정치이론이 유럽국가 간의 관계와 제도, 규범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비유럽지역이 객체화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주류이론에 따라 물질 및 구조 이외의 분석틀이 경시되어 온 것이다. 알제리 정체성의 분기(分岐)는 국제정세 이해에 있어 분석수준에서의 거시적·구조적 분석, 이론적 측면에서의 현실주의·자유주의적 분석이 지닌 한계를 드러낸다. 1990년대 이후 국제정치이론에서 문화담론이 급부상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문화담론을 연동한 분석의 유용성은 주류 국제정치이론에 의미 있는 대안적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다음으로, 알제리가 내포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지정학적 중요성은 국제정치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구성한다. 이는 ‘국제체제’ 개념과 긴밀한 관계를 지닌다. 알제리는 유럽과 아프리카 간 통로에 위치해 있다. 북아프리카(North Africa),

1) Gideon Rachman, *Easternisation: War and Peace in the Asian Century* (London: Bodley Head, 2016), pp. 146-165.

2) 맥락이라 함은 담론적이고 상호 주관적인 맥락을 의미한다. 국제관계를 구성하는 구조적(structural)·물질적(material) 힘의 분포를 경시하지 않되, 구조와 물질의 의미가 중국적으로는 담론적이고 상호 주관적 맥락에서 결정된다는 구성주의적 가정에 따른 것이다. 관념적(ideational) 요소의 상대적 강조는 이념, 문화, 역사에 대한 궁구(窮究)로 나타나며, 이는 다시 구조, 물질 중심의 기존 분석경향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알렉산더 웬트, 박건영·이옥연·구갑우·최중건 역,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구성주의』(서울: 사회평론, 2009), p. 9 참조.

마그레브(Maghreb), 메나(MENA), 유럽-아프리카(Eurafrica) 등 다양한 지리적·지정학적 개념과 연동된다.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간 통로에 위치해 있는 만큼,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알제리는 지역 패권에 따른 정체성 변화를 경험했다. 알제리가 경험한 패권은 기실은 지역적이라기보다 전(全)지구적이다. 알제리를 점령한 로마제국과 오스만 터키, 프랑스는 각 시대를 대표한 세계정치의 중심이었다. 이는 상술한 사례 분석 측면에서의 인식론적 빈약성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알제리 정체성이 끊임없이 객체화되어왔음을 방증한다. 이 과정에서 알제리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억은 폐색(閉塞)되고, 조작되었다. 특정 기억(정체성)은 강조되고, 다른 기억들은 망각되었다.³⁾

국제정치 분야에서 알제리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다룬 국내 연구는 찾기 어렵다.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역별, 시기별로 분절적인 경우가 많다.⁴⁾ 결국 인식론적 측면에서 알제리 (혹은 마그레브) 연구는 적어도 국제정치 분야에서는 아직 초입 단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내에서 탈식민 국제정치학 이론 정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⁵⁾ 독립 후 하나의 정체(政體)로서 아프리카 탈식민주주의의 화신(化身)으로 불린 알제리 사례 분석은 한국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⁶⁾

본 논문의 전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에서는 알제리 정체성 검토를 위한 이론적·분석적 기반을 제공한다. 아울러 정치문화와 정치이념을 개념적으로 연동함으로 분석틀을 구성한다. 제3장은 이를 바탕으로 알제리 정치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적 정

3) Rabah Aissaoui and Claire Eldridge (eds.), *Algeria Revisited: History, Culture and Identity* (New York: Bloomsbury, 2018), p. 3.

4) 예를 들어, 김태수, “프랑스-알제리 관계: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프랑스학연구』 75 (2016), pp. 279-302; 양재혁, “제3공화국 이전 프랑스의 알제리 ‘연합’ 식민 정책에 대한 소고: 바르텔레미 앙팡탱(Barthelemy Enfantin)의 알제리 식민 이론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131 (2016), pp. 263-291; 이용재, “드골과 알제리 독립,” 『프랑스사연구』 27 (2012), pp. 251-269; 임기대,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베르베르(Berber) 정책이 마그레브 지역의 문화 변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프리카학회지』 53 (2018), pp. 203-232. 임기대,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증빙과 퇴진 그리고 알제리 정치 체제에 남겨진 문제에 관한 연구,” 『프랑스문화연구』 41 (2019), pp. 431-458 등을 참조하라.

5) 은용수, “‘비주류’ IR 이론과 한국의 국제정치문제: 탈식민주주의를 향한 재조명, 탈식민주주의를 통한 재구성,” 『국제정치논총』 제56집 3호 (2016), pp. 51-88; 전재성, “탈식민 국제정치학 이론과 한국,” 『국제정치논총』 제59집 4호 (2019), pp. 173-206.

6) 알제리는 프랑스와의 독립전쟁(1954~1962년)을 통해 전세계 반식민주의 선도자로서의 인식을 확고히 수립한 바 있다. 말콤 엑스(Malcolm X), 체 게바라(Che Guevara),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등 현대 탈식민주의를 실제적으로 이끈 세계적 명사들 모두 알제리 전쟁에서 반식민운동의 영감을 얻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Richard Pithouse, “Why Fanon Continues to Resonate More Than Half a Century After Algeria’s Independence”, *The Conversation*, 5 July 2015.

<https://theconversation.com/why-fanon-continues-to-resonate-more-than-half-a-century-after-algerias-independence-43508> (검색일: 2020.1.28).



체성을 역사적 추론을 통해 논의한다. 다만 추론을 위해 필요한 역사적 사실과 그에 따른 맥락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다소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⁷⁾ 제4장은 앞선 논의를 종합해 알제리 정체성을 분석적 측면에서 적용해보고, 해당 분석이 지니는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Ⅱ. 국제정치이론과 문화담론

1. 개념적 접근

문화는 본래 국제정치보다는 비교정치 분야에서 오랜 기간 주목해온 개념이다. 문화는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연결해주며, 집단의 경계를 설정하고, 집단 간 행동과 동기의 해석을 위한 틀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정치체제 간 보편성과 특수성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변수로 여겨졌다.⁸⁾ 모든 정치체제는 정치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특정 정향(定向)에 속한다는 알몬드와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⁹⁾ 그러나 비교정치에서 말하는 정치문화 개념은 주로 행태주의 혹은 실증주의적 접근의 일환으로 발전된 것이라는 점에서 탈실증주의 기치 아래 문화담론을 내세운 국제정치의 구도와는 맥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개념을 문화담론과 본질적으로 연계했다는 점은 비교정치와 국제정치 분야 모두 동일하다.

현대 국제정치이론에서 실증주의 중심의 주류이론에 의해 간과되어 온 정체성과 문화담론은 행위자들의 정책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자들에 의해 주목받았다.¹⁰⁾ 그러나 다른 한편 ‘정체성-문화’의 결합은 양자 간 개념적 분화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웬트에 따르면 문화는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지식”이며,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지식이란 “개인들을 연계시키는 공통적인 지식”을 의미한다.¹¹⁾ 문화를 정의한 것이지만 정체성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봐도 이상하지 않다. 다시

7) 프랑스 점령이 시작된 19세기 초반 이후 현대까지 알제리의 정치·문화적 맥락에 대해서는 James McDougall, *History and the Culture of Nationalism in Alger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Fiona Barclay, C. A. Chopin and M. Evans, “Introduction: Settler Colonialism and French Algeria,” *Settler Colonial Studies* 8-2 (2018), pp. 115-130 등을 참조.

8) 김성수,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교정치』 (서울: 박영사, 2019), pp. 106-144.

9) Gabriel A. Almond, “Comparative Political System,” *Journal of Politics* 18-3 (1956), p. 395.

10) Thomas Diez, Ingvild Bode, and Aleksandra Fernandes da Costa, *Key Concep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SAGE, 2011), p. 212.

11) 웬트 (2009), p. 211.

말해 구성주의적 맥락에서 정체성과 문화는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어 왔다. 명확한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정체성 개념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자 “[정체성] 정의적(的) 무정부상태(definitional anarchy)”에 놓여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¹²⁾

여기서 문화는 정치문화를 의미한다. 정치문화는 특정 사회 내에서 축적된 지식, 경험, 가치, 행동, 정향, 사고방식, 행동양식 등을 포괄한다.¹³⁾ 정치문화에 국한된 것이라 하더라도 문화담론은 특정 사회에 깊이 내장되어 있다. 문화의 변경이 강압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이유다. 예컨대 문화 동화를 목표로 일본이 내선일체(內鮮一體)의 구호 아래 민족 말살정책을 펼쳤으나 해당 정책에 대한 부정적 후과는 해방 후 7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 내에서 재생산되어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결국 ‘정치’와 ‘문화’의 협의적 개념은 달라도 양자 간 관계는 불가결하다.¹⁴⁾

문화의 정치성은 정치이념(혹은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귀결된다. 정치문화 분석은 단순히 특정 사회가 지닌 정체성에 대한 수동적 고찰에 그치지 않는다. 홀의 지적대로 정체성은 인지(identification)의 결과다. 인지적 과정은 다른 집단에 대한 타자화(他者化)를 통해 구성된다.¹⁵⁾ 대부분 국가·사회 단위는 문화담론을 통해 각각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행동을 결정”하며,¹⁶⁾ 이 과정에서 각기 독특한 가치·규범 체계를 창출한다.¹⁷⁾ 이 지점에서 문화담론은 정치이념과 연결된다. 창출된 ‘독특한 가치·규범 체계’가 의미하는 것이 다름 아닌 정치이념이기 때문이다.¹⁸⁾ 다만 정치이념은 사회 내 특정 집단의 가치체계, 계급·사회적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정치문화에 비해 부정적 의

12) Rawi Abdelal, Yoshiko M. Herrera, Alastair Iain Johnston and Rose McDermott, “Identity as a Variable,” *Perspectives on Politics*, 4-4 (2006) p. 695.

13) Howard J. Wiarda, *Culture and Foreign Policy: The Neglected Factor in International Relations* (Oxon: Routledge, 2016), p. 8.

14) 국제정치에서 문화담론과 문명담론이 혼재되어 사용된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 최정운은 이를 “문화담론과 문명담론의 본질적인 경상(鏡像, mirror image) 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담론이 당초 문명담론의 대항 개념으로 제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 담론 모두 사회적 집단 간 ‘우열관계’를 암시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양자는 “계보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정운, “문화와 권력,” 『세계정치 7』 제28권 제1호 (2007), p. 54 참조.

15) Stuart Hall and P. Du Gay (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London: SAGE, 1996), pp. 1-17.

16) 최정운 (2007), p. 57.

17) Christopher Norris, “Culture, Criticism and Communal Values: On the Ethics of Enquiry,” In B. Adam and S. Allan (eds.), *Theorizing Culture: An Interdisciplinary Critique after Postmodernism* (London: UCL Press, 1995), pp. 5-40.

18) 정체성, 정치문화 개념만큼이나 정치이념에 대한 분명한 정의 역시 부재하다.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신념체계”, “지배계급의 통치관념”, “특정 정치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부여된 관념의 집합”, “정치 관념의 추상적, 고도의 조직적 집합” 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Andrew Heywood, *Political Ideologies: An Introduction* (Palgrave Macmillan, 2012), p. 5 참조.



미가 내포되어 있기는 하다.

문화담론을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과학화된 신념”으로 간주한다면, 문화담론의 헤게모니 투쟁 역시 영속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화를 정치이념의 문제로 이해했을 때—특히 ‘계보학적 측면’에서 보면—문화담론은 라레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처음 활용한 18~19세기 프랑스 철학자인 트레이시(Antoine Destutt de Tracy)로 학문적 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셈이다.¹⁹⁾ 요컨대 국제정치에서 문화는 담론의 일환이며, 이데올로기 기반 접근은 한 사회의 정치문화 변동, 문화담론 간 헤게모니 양상을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역사적 사실은 정치문화 혹은 문화담론 변화 양태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결절(結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²⁰⁾

2. 분석적 접근

정체성과 문화 간의 개념적 결합 양태는 분석적 특성으로 이어진다. 특히 구성주의 계열의 학자들은 외교정책분야에서 국가 정체성을 분석하는 데 이 같은 특성을 활용했다. 즉, 문화·제도적 맥락은 국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며, 특히 외교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문화·제도적 맥락이 중시되는 것이다. 카첸슈타인에 따르면 국가이익과 전략은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끊임없는 정치적 과정으로 인해 형성된다.²¹⁾ 국가는 군사·경제력과 같은 물질적 맥락에 좌우되는 단일 행위자(unitary actor)가 아닌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이다. 이를테면 존스톤은 중국의 고전 병법서들을 분석해 중국 ‘전략문화’를 도출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는다.²²⁾ 중국 전략문화의 핵심은 ‘안보제일 패러다임(parabellum paradigm)’이지만 동시에 ‘절대적 유연성(absolute flexibility)’을 견지한다. 자신이 강할 때는 무력 사용을 선호하거나 강압적 전략에 의존하지만 국력이 약할 때는 평화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가 정체성과 문화 개념을 연동하거나, 정체성을 유연하고 가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구성주의의 핵심 인식이다.²³⁾

19) Jorge Larraín, *The Concept of Ideology* (London: Hutchinson, 1979), p. 27.

20) Mark Trachtenberg, *The Craft of International History: A Guide to Metho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 39.

21)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pp. 1-25.

22) Alastair Lain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구성주의적 시각은 영국학파(English School)의 인식론에서도 엿볼 수 있다.²⁴⁾ 웬트가 지적한대로 영국학파는 “국가정체성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국제체제를 공유된 규범들에 의해 통치되는 하나의 사회로 취급한다.”²⁵⁾ 문화는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활동’이며, 국제관계는 ‘국가 간 사회’가 형성된 결과라는 것이다. 영국학파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이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를 형성하는 문화담론 분석을 위한 일단(一端)의 틀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²⁶⁾ 첫째는 선봉(先鋒)주의(vanguardist)로 일종의 문화 예외주의이다. 국가·지역 간 정치문화 차이를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우월한 문화의 이식을 추구한다. 베스트팔렌조약(Peace of Westphalia) 이후 성립된 유럽 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제도(주권, 내정불간섭, 세력균형, 국제법 등)를 전 세계로 확산한 것이 대표적 예다. 선봉주의는 전후 탈식민주의 시대를 맞이해 다소 방어적으로 변모했다. 선봉주의자들에게 탈식민주의는 국제사회를 약화시키는 기제로 여겨진다.²⁷⁾

둘째, 통합주의(syncretist)로 문화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유럽 우월주의를 부정하고 유럽 문화 역시 북아프리카 및 유라시아 지역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탄생한 것임을 지적한다. 중국과 이슬람, 인도 지역에서 형성된 과학기술과 상업활동기술은 수 세기에 걸쳐 유럽으로 전파됐다. 현재의 국제체제가 19세기 유럽문명을 기준으로 형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유럽 자체가 과거 여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변모’한 결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주의 역시 기본적으로 문화적 통합을

23) 예를 들어, 웬트 (2009); Katzenstein (1996); Emanuel Adler, “Seizing the Middle Ground: Constructivism in World Politic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3-3 (1997), pp. 319-363; Jeffrey T. Checkel, “The Constructive Turn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orld Politics* 50-2 (1998), pp. 324-348 등을 참조하라.

24) 물론 구성주의 외의 국제정치이론에서 인식론의 중심에 관념론(ideationalism)을 둔 것은 영국학파만이 아니다. 비판이론, 탈근대주의,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 등이 유사한 인식론을 공유한다. 다만 비판이론은 엄밀히 말해 국제정치보다는 정치사회학, 역사사회학적 관점에 주로 기반하고, 탈근대주의 및 후기구조주의 역시 사회언어학적 요소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국제관계를 직접 다루는 영국학파와는 구분된다. 페미니즘은 웬트의 초기 분류와는 달리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후기구조주의적 페미니즘 등 인식론적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이를테면 관점(standpoint) 페미니즘의 경우 경험적 분석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웬트 (2009), p. 54; Columba Peoples and Nick Vaughan-Williams, *Critical Security Studies: An Introduction* (Oxon: Routledge, 2015), pp. 46-60 참조.

25) 웬트 (2009), p. 53.

26) Barry Buzan, “Culture and International Society,” *International Affairs* 86-1 (2010), pp. 4-10.

27) Barry Buzan and R. Little “The Historical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ciety,” In C. Navari and D. M. Green (eds.), *Guide to the English School in International Studies* (Chichester: Wiley Blackwell, 2014), pp. 59-75.



지향하고 있으며 현 문화질서의 안정적 유지를 원한다는 점에서 서구 중심의 문화시각에서 탈피하지 못했다.²⁸⁾

상기한 이론적 분석들은 모두 문화담론을 ‘분석틀(culture-as-framework)’의 일환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각 민족국가-혹은 각 (국제)지역체제-를 ‘상상의 공동체’로 보고 문화를 국가 정체성 또는 이데올로기 결속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이다. 분석틀로서의 문화담론은 그 자체가 독립변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행위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종속적 성격도 지닌다. 이와 같은 인식론은 국제체제를 서구, 이슬람권, 유교권 등 주요 문화권으로 나눈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문화담론에서 잘 드러난다.²⁹⁾ 물론 센(Amartya Sen)의 지적대로 정체성은 단선적이지도 고정적이지도 않다.³⁰⁾ 같은 맥락에서 사이드(Edward Said)는 헌팅턴의 문명 간 분류를 “게으른 일반화”라고 평가했다.³¹⁾ 그러나 헌팅턴의 분류를 반드시 정태적, 고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문화권’이 되었든 ‘정치이념’이 되었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개념에 입각한 분석틀은 필요하다.³²⁾

문화담론을 통한 알제리 정체성 분석과 재구성의 필요성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다. 개념·분석적 접근을 통해 바라본 문화담론의 특성은 근본적으로 ‘불확정성’과 연관되어 있다. 특정한 패턴 관측에 입각해 일관성을 추출해내는 방식으로는 알제리 사회의 정체성을 예측해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문화담론이 분석틀로서 지니는 특장(特長)을 활용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다. 결국 거시적 측면에서 봤을 때, 분석틀로서의 문화는 이데올로기 개념을 활용한 묘사로 대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고는 알제리 국가 정체성을 하나의 분석 대상으로 삼되, 해당 정체성을

28) Buzan (2010), pp. 10-25.

29)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Touchstone, 1996).

30) Yoko Kawamura, “Methodological Duality and Conceptual Plurality of Cultur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owards Collaboration of Cultural Policy Research and International Relations.” *Bulletin of the Faculty of Humanities, Seikei University* 51 (2016), p. 5.

31) Rajen Harshe, “Culture, Ident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41-37 (2006), p. 3948.

32) 문화담론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문화를 어떠한 구체적 대상 및 요소로 보는 시각(culture-as-object) 또한 존재한다. 이 범주 하에서는 민속 문화, 매스미디어, 박물관, 도서관, 문화산업 등 모든 문화적 대상이 문화담론 분석을 위한 대상이다.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을 고찰한다는 측면에서 소프트파워(soft power) 개념과 연동될 수도 있다. 물론 ‘분석틀’로서의 문화와 ‘대상 또는 요소’로서의 문화는 중국에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정치이념을 선두로 한 국가 정체성은 대상으로서의 문화적 요소에 선행하지만, 동시에 해당 국가 내의 문화적 요소들은 국가 정체성의 구축 및 강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해서는, Kawamura (2016), pp. 1-18 참조.

구성하는 주요 정치이념들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담론과 이데올로기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표 1> 참조). 이 과정을 통해 근대 이후 알제리 정체성 구성과정은 물론 알제리를 결속, 분열시킨 문화담론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구조(국가)단위로서의 분석틀이 알제리를 얼마나 적실성 있게 묘사하는지를 고찰한다.

<표 1> 알제리 문화담론 분석틀

분석방법	분석수준(대상)	주요 분석이념
분석틀로서의 문화 (culture-as-framework)	국가-정치이념 (이데올로기)	탈식민주의, 민족주의, 군벌주의, 사회주의, 아랍·이슬람주의, 지역주의, 유럽주의 등

Ⅲ. 알제리 정체성: 구성적 추론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국가다(면적 2,381,741km², 세계 10위).³³⁾ 자연히 베르베르(Berber)로 불리는 토착문화, 아랍·이슬람문화, 유럽문화, 아프리카문화 등이 공존한다.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아프리카 최대국가로서 로마, 이슬람, 오스만 터키, 프랑스 등에 차례로 지배당한 점을 고려할 때 문화적 다양성은 알제리에게는 운명이다. 문제는 근대 이후 알제리 정치문화 형성과정의 점진적이라기보다 급진적으로 전개되었다는 데 있다. 현대 알제리 정체성을 형성하는 탈식민주의, 민족주의, 군벌(軍閥)주의, 아랍·이슬람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토착·지역주의, 유럽(-아프리카)주의, 선봉주의 등에 모두 해당하는 말이다. 이들 정체성은 상호 배타적이면서도 자기 모순적이고, 또한 중첩적 이데올로기 성향을 지닌다. 아울러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동일한 이데올로기임에도 추구하는 가치가 상이함을 노정한다. 정체성의 분기는 국제정세에 따른 국가 외부적 변수 외에도 내부적 요인에 의해 동시에 진행되었고, 이는 다시 체제적 변환을 야기하는 변수로 작용했다. 요컨대 알제리 사례의 역사적 추론은 정치문화 분석단위가 단선적 구조단위로 환원될 수 없음을 방증한다.

33) 2011년 남수단 분리 독립 이후 아프리카 최대 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세계 최대 아랍국가의 지위도 얻었다.



1. 탈식민주의: 현대 정체성 분기의 기원

프랑스 식민지배(1830~1962)는 현대 알제리 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식민 통치의 잔혹성, 탈식민기는 물론 탈냉전기에 이르러서까지 프랑스가 알제리에 보인 사과의 편협성 등은 알제리 문화의 중심에 식민주의 대항 담론을 두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³⁴⁾ 물론 (탈)식민의 경험은 알제리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아프리카 전반이 탈식민기 정체성 변이를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제리는 독립 직후 아프리카를 포함한 제3세계의 ‘정치적 자각(political consciousness)’을 주창하는 선봉에 섰다는 점에서 특별하다.³⁵⁾

정치적 자각 운동은 정치문화를 넘어 예술문화 분야로 이어졌다. 알제리에 있어 문화는 정치적 힘의 원천이었다. 정부차원에서 아프리카의 문화유산 계승을 위해 정력과 예산을 집중했다. 1969년 수도 알제에서 제1회 범(凡)아프리카 문화축제(Pan-African Cultural Festival)가 열린 것은 그러한 결실의 일환이었다. 아프리카 전역 신생 독립국 출신 4000여명의 예술가들이 모였다. 축제는 2년 전인 1967년 아프리카연합(AU)의 전신인 아프리카통일기구(OAU)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³⁶⁾ OAU 창설은 1963년 알제리 초대 대통령 벤 벨라(Ahmed Ben Bella), 가나 초대 대통령 은쿠르마(Kwame Nkrumah) 등의 주도 아래 이뤄졌었다. 축제의 주제는 ‘제국주의로부터의 탈피’였다. 아프리카인의 손으로 아프리카 역사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 34)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프랑스의 인식은 ‘잘못을 인정은 하되 사과는 할 수 없다’ 정도로 요약된다. 니콜라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2007~2012 재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다카르 연설(Dakar Address: 2007년 7월 27일)을 통해 “누구도 현재 세대에게 과거 세대로부터 자행된 범죄를 속죄하라고 물을 수 없다 [...] [현재 세대가] 속죄할 의무는 없다. 과거를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Virginie Bonnot, S. Krauth-Gruber, E. Drozda-Senkowska and D. Lopes, “Emotional Reactions to the French Colonization in Algeria: The Normative Nature of Collective Guilt,” *Social Science Information* 55-4 (2016), pp. 536.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2012~2017 재임) 전 대통령 역시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배가 “부당하고 악랄한 것(unjust and brutal)”이라 인정했으나, 그의 언명(言明)은 사과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에마뉴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07년 식민지배가 “반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라며 “우리가 이 같은 일을 자행한 [알제리인들에게] 사과함으로써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취임 후 “[식민정책의 잘못에 대해] 부인도 사과도 하지 않겠다(neither denial nor repentance)”며 후퇴한 인식을 드러냈다. Henry Samuel, “France May Have Apologised for Atrocities in Algeria, but the War Still Casts a Long Shadow,” *The Telegraph*. 15 September 2018.
- 35) Robert A. Mortimer, “The Algerian Revolution in Search of the African Revolution,”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8-3 (1970), pp. 363-387.
- 36) Abayomi Azikiwe, “Looking Back to Move Forward: The First Pan-African Cultural Festival in Algeria, 1969,” *Global Research*. <https://www.globalresearch.ca/first-pan-african-cultural-festival-algeria-1969/5688025> (검색일: 2020.1.6).

범아프리카 문화축제 및 OAU 사례가 보여주듯 탈식민주의는 알제리뿐 아니라 아프리카 신생독립국들이 국가통합(national unity) 담론을 유지해 나가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³⁷⁾ ‘통합’이 국가 좌우명으로 격상됨에 따라 독립 초반 지도자들은 적어도 정치담론 측면에서 국가 내 정체성 분절 상황을 언급하지 않으려 했다.³⁸⁾ 탈식민 완성과 국가통합이라는 대의명분은 토착·지역 정체성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저지했다. 알제리의 경우 후술할 카빌리(Kabylie) 지역의 토착민(베르베르)들이 독립전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탈식민기 정치문화 형성 과정이 패권적·권위적이었던 데 있다. 토착민들이 독립 이후 국가건설과정에서 배제된 것 또한 탈식민주의에 기반해 통합을 추구한 정권이 정당성 구축을 독점하려 한데서 비롯되었다. 이는 탈식민주의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치문화로서의 ‘알제리 문화’가 아니라, 군벌주의, 아랍·이슬람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이 혼합된 비정상적 민족주의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대 알제리 정치문화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래의 내용은 탈식민주의로부터 배태된 각 정체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묘사한다.

2. 민족주의: 정체성의 부정교합

알제리 독립전쟁에서 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FLN)의 존재는 절대적이었다. 물론 전쟁 이전에도 독립운동은 활발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무슬림 정치가였던 아바스(Ferhat Abbas)가 알제리 민족주의자들의 서명을 모아 민족자결원칙에 근거해 ‘알제리민족 선언서(Manifesto of the Algerian People)’를 발표했다. 유럽전승기념일인 1945년 5월 8일에는 프랑스 통치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프랑스는 독립을 염원하는 알제리인들의 열망을 무력으로 짓밟았다. 이 사고로 적게는 1,500명에서 많게는 45,000명의 알제리인이 사망했다.³⁹⁾ 결국 독립은 무력항쟁을 통해 쟁취되었다. 베트남에서 프랑스의 패퇴에 고무된 FLN이 1954년 11월 알제리

37) 탈식민기 통합을 강조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표적 문장(紋章)들로는 부룬디의 Unité, Travail, Progrès (통합, 근면, 진보, 1966년), 적도기니의 Unidad, Paz, Justicia (통합, 평화, 정의, 1979년), 잠비아의 One Zambia, One Nation (하나의 잠비아, 하나의 국가, 1964년) 등을 들 수 있다.

38) Ian Taylor, *African Politics: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 75.

39) Christopher Hitchens, “A Chronology of the Algerian War of Independence,” *The Atlantic*. <https://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2006/11/a-chronology-of-the-algerian-war-of-independence/305277/> (검색일: 2020.1.6).



전역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혼란상황 가운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이어졌고, 프랑스 4공화국 정부는 수습능력을 결여했다. 이후 FLN 평정 및 프랑스령 알제리 (Algérie Française) 회복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했던 드골(Charles De Gaulle)의 취임은 역설적이게도 1962년 알제리의 독립(Algérie Algérienne)으로 이어졌다.⁴⁰⁾

FLN은 독립 후 알제리 정치담론의 독점권을 행사했다. 프랑스는 공동의 적이었고 내부적 갈등·투쟁으로 인해 사망한 알제리인들까지 모조리 ‘항불(抗佛) 독립투사’로 여겨졌다. 내부 집단 간 정체성의 차이는 간과되었다. FLN의 권력 독점은 탈식민지 정치 구도에서 군벌 집단 형성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군은 ‘알제리 시민의 반식민주의 저항운동’의 표상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했다.⁴¹⁾ 다만 알제리 정치체제에서 군(軍) 중심 구도가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FLN 내에서 비교적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있던 람단(Abane Ramdane)은 독립전쟁 수행의 초석이 된 1956년 수맘 회의(Soummam Conference)를 통해 전후 알제리 정치체제가 채택해야 할 두 가지 원칙으로 ‘군 통치에 대한 정당정치적 우위’와 ‘해외투사에 대한 국내투사의 우위’ 등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군의 정치통제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은 람단이 FLN 내 군부 과격파들에 의해 암살당함으로써 추동력을 상실했다. 독립 알제리의 최초 실권은 수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벤 벨라에게 돌아갔고, 알제리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아바스를 포함한 민간 지도자들은 권력에서 배제되었다. 아바스는 이를 “정집당한 독립 (confiscated independence)”으로 묘사했다.⁴²⁾

벤 벨라 정권은 독립전쟁의 또 다른 주역인 부메디엔(Houari Boumédiène)이 주도한 쿠데타로 무너졌다. 1963년 채택된 제헌헌법은 FLN 일당독재를 명문화했으나 쿠데타로 기능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LN 중심의 사회주의(socialism) 체제는 부메디엔 시기인 1976년 헌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화의 아랍화(Arabisation) 역시 가속화되었다. 1976년 헌법(제3조)은 공공장소에서 ‘국어’인 아랍어 사용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국가에 부여했다. 토착 언어와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으며, 사회주의가 곧 정의로운 민주주의였다. 아랍화는 이슬람화를 추동했으나 FLN 일당독재 하에서 군은 세속화되었고 이슬람 정당의 제도권 진입 가능

40) 알제리 독립전쟁 당시 드골, 프랑스 군부, 알제리 민족주의자, 프랑스령 알제리 유럽 정착민들 (pieds-noirs)의 상호 인식 및 정체성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이용재 (2012), pp. 251-269; Barclay et al. (2018), pp. 115-130 참조.

41) Barclay et al. (2018), p. 125.

42) Muriam Haleh Davis, “Algeria: The army, the people, and the three Bs,” *Al Jazeera*. <https://www.aljazeera.com/indepth/opinion/algeria-army-people-bs-190416162721661.html> (검색일: 2020.1.6).

성은 전무했다.⁴³⁾

그러나 왜곡된 형태의 민족주의는 오래가지 못했다. 경제정책 실패가 근본 원인이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원유 수출량이 다소 증가하는 듯 했지만 1986년 유가 하락이 타격이 됐다. 빈곤과 실업난 해소에 실패한 FLN은 유권자의 신뢰를 상실했고, 일당독재 시대는 1988년 10월 봉기로 사실상 무너졌다. 민중 봉기, 냉전 종식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 등 점증하는 압력에 직면한 벤제디드(Chadli Bendjedid) 정권은 1989년 헌법을 채택하며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13년 전 헌법을 수놓았던 ‘사회주의’는 사라졌고, 대신 정치적 회합의 자유가 보장되었다(제41조, 제43조). 1991년에는 다당제가 채택됐다. 그러자 민주주의 원칙을 체화하지 못한 정치단체가 난립했다. 정치적 공간은 열렸으나 해당 공간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정치문화는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⁴⁴⁾ 장기간 지속된 일당독재의 후유증이였다. FLN도 마찬가지였다. 소속 의원들이 벤제디드 정책노선에 반발하는 등 내홍이 벌어졌다.⁴⁵⁾

1990년 6월 지방선거 및 1991년 12월 1차 총선은 탈식민기 민족주의적 정체성이 내포한 문제점을 극대화한 계기가 되었다. 양 선거에서 이슬람 정당인 이슬람구국전선(The Islamic Salvation Front, FIS)이 압승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정강(政綱)을 탈피해 선거과정을 민주화한 군벌 세력의 실험이 뜻하지 않게 이슬람 세력의 발현으로 이어진 것이다. 선거결과는 FLN은 물론 알제리 국민들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FIS가 이슬람 원리주의에 따라 알제리 사회를 수백 년 후퇴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다.⁴⁶⁾ 걸프전 발발 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가 FIS의 선거전을 측면 지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편 이란 의회는 FIS의 승리를 “이슬람의 승리(triumph of Islam)”로 지칭했다.⁴⁷⁾

결국 2차 총선에 앞서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FIS를 불법화했다. FIS 지도자였던 마다니(Abbas Madani)와 벨하지(Ali Belhadj)가 구속됐고, 주요 인사들이 망명했다. 격

43) Furkan Halit Yolcu, “The Democratizer Army Paradox: The Role of the Algerian Army in Impeding Democratization,”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54-7 (2019), pp. 1033-1047.

44) Youcef Bouandel, “Political Parties and the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ism: The Case of Algeria,”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41-1 (2003) pp. 1-22.

45) Mohand Salah Tahı, “The Arduous Democratization Process in Algeria,”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30-3 (1992), pp. 402-405.

46) 1991년 총선에서 FIS가 총 투표의 40% 이하를 획득해 FLN 및 기타 정당들과 분점 권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예상이었다. 개표 결과 FIS는 24.59%, FLN은 12.17%의 득표율을 획득하였으나, 의석수는 총 231석 중 FIS가 188석, FLN이 15석으로 FIS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FIS의 지지층이 일부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음을 방증한다.

47) Salah Tahı (1992), pp. 405-411.



분한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테러가 이어졌다. 테러 집단 가운데 이슬람 무장단체(Armed Islamic Group, GIA)는 미국 정부에 의해 한 때 3대 테러조직으로 이름을 올렸었다.⁴⁸⁾ 10여 년 간 지속된 내전 과정에서 10~20만 명이 희생됐다. 세계는 ‘역사의 종말’에 따른 변화의 물결을 경험했지만, 알제리는 ‘암흑의 10년(The Black Decade)’에 직면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죽음과 공포로 기억되는 시기였다.⁴⁹⁾

1990년을 전후한 소동은 알제리 정체성의 혼란을 여실히 드러냈다. ‘아랍·이슬람 가치의 틀 안에서 사회·문화적 가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1989년 헌법 체제 하 정치단체의 주요 설립 기준 중 하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아랍·이슬람화를 추동한 것은 다름 아닌 군부정권이었다. 군부가 각지에 세운 모스크(mosques)는 역설적이게도 FIS에게는 최적의 선거운동장소로 기능했다. 지방선거와 총선은 FIS 지지층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당시 전체 인구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던 30세 이하 유권자들은 FLN의 “가짜 정당성(bogus legitimacy)”에 신물이 난 상태였다. 수십 년 간 지속된 아랍화 정책으로 이라크, 이집트, 팔레스타인 등지로부터 아랍어 교육자격을 얻은 교사들이 알제리로 몰려들었다. 중동식(中東式) 아랍어는 알제리 방언과 뒤섞였고 그 결과 아랍어와 프랑스어 어느 하나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세대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경제위기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는 세대였다.⁵⁰⁾

결국 권위주의, 패권주의, 사회주의에 의지해 아랍·이슬람화를 추구해 온 군부는 경제난 타개 실패로 촉발된 민주화 열망 앞에 정치개혁을 약속했으나, FIS의 부상을 수용하지 못한 채 민주적으로 진행된 선거결과를 무효화하고, 비민주적 방법으로 정권을 재탈취함으로써 현대 알제리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인 내전을 촉발했다. 탈식민주의, 사회주의, 아랍주의 등으로 대표된 ‘알제리 정체성’의 모순이 표출된 시기였다.

3. 군벌주의, 지역주의, 유럽주의: 중첩적 선봉주의

상기한대로 알제리 군은 탈식민과 알제리 민족주의를 기치로 등장했지만 정체성 주입은 패권적으로 이뤄졌다. 영국학파의 표현에 따르면 선봉주의에 가까웠다. 1980년 4

48) Meredith Turshen, “Militarism and Islamism in Algeria,”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39-1/2 (2004), pp. 119-132.

49) Bobby Gulshan, “Reckoning with Darkness: Looking Back on Algeria’s Dark Decade,” *Al Jadid: A Review & Record of Arab Culture and Arts*.
<https://www.aljadid.com/content/reckoning-darkness-looking-back-algeria%E2%80%99s-dark-decade> (검색일: 2020.1.6).

50) Salah Tahi (1992), p. 412.

월 발발한 ‘베르베르의 봄’(Berber Spring. 또는 Kabyle Spring이라고도 한다)은 베르베르인들이 일으킨 정체성 수호 운동이었다. 알제리 인구의 약 5분의 1을 차지함에도 베르베르인은 정부의 강력한 아랍화 정책으로 인해 정체성 말살 위기를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가수이자 활동가인 마투브(Lounés Matoub)가 노래를 통해 정체성 수호에 전념하면서 베르베르 문화 운동의 핵심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자연스레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표적이 되었고, 내전 중인 1994년 GIA에 납치되었다 풀려났지만 1998년 결국 살해되었다. 베르베르인들은 분노했고, 정부가 마투브 살인을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봤다. 살해당한 문화 활동가들은 마투브만이 아니었다. 예술, 연극, 영화 등 장르를 불문하고 수많은 문화인들이 공격, 살해당했다.⁵¹⁾

알제리 정부의 베르베르 정책은 1999년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집권 이후 크게 바뀌었다. 내전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화합정책을 펼친 부테플리카는 2002년 베르베르어를 국어로 채택하는 등 베르베르인 포용 정책을 펼쳤다. 2018년에는 베르베르인의 신년 축제일인 ‘옌나예르(Yennayer)’가 공휴일로 처음 지정됐다. 1991년 총선을 무효화하고 권력을 장악했던 군(軍)을 통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인물이 부테플리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⁵²⁾ 베르베르 정책 변동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임기대는 부테플리카를 “아랍·이슬람 이외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적 상황에서 국민화합을 통해 다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한 최초의 인물”로 평가했다.⁵³⁾

포용 정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해 북아프리카, 중동국가들로 퍼져나간 아랍의 봄(Arab Spring) 확산을 막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었다. 또 지역주의의 활동 공간이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군 세력이 결탁된 정치문화의 잔존은 알제리가 향후 문화적 다양성을 민주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5선 연임을 노리던 부테플리카가 국민들의 대대적 저항에 직면해 권좌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소요사태는 베르베르로 대표되는 지역·토착주의 정체성 문제 해결이 요원함을 보여준다. 시위의 핵심 메시지는 ‘군이 주도하는 국가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며, 2019년 12월 대선은 군사정부의 연장일 뿐’이라는 것이었고, 카빌리 지역 베르

51) 김광수, “프랑스어권 알제리 베르베르(Berber)인의 민족적 정체성의 맥락화 고찰: 마투브 루네스(Matoub Lounès)의 노래에 나타난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연구』 40 (2019), pp. 135-179.

52) Dalia Ghanem-Yazbeck, “Are Bouteflika’s Shake-Ups a Sign of Shifting Civil-Military Ties in Algeria?” *World Politics Review* 15 November 2018. <https://www.worldpoliticsreview.com/articles/26763/are-bouteflika-s-shake-ups-a-sign-of-shifting-civil-military-ties-in-algeria> (검색일: 2020.1.6).

53) 임기대 (2018), p. 223.



베르인들의 투표 거부감은 더 극심했다.⁵⁴⁾

2019년 전개된 알제리 정치 불안정은 ‘탈식민주의-군벌주의’ 중심 알제리 정체성의 한계가 재차 노정된 것이다. 토착주의 정체성 포용이라는 부테플리카 개인의 노력이 정치문화의 전반적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시민들의 선거 거부 요구는 군의 ‘선거 중립’ 입장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부테플리카 연임이 확정된 2004년 대선에서도 군은 중립을 지킬 것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부테플리카 재임 기간 군-안보기관의 권력은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⁵⁵⁾ 군 조직은 전문화되었지만 탈정치화하지는 않았다. 군은 독립전쟁의 성과로 얻은 정당성을 빌미로 FLN을 내세워 전후 50년이 넘는 기간 견고한 정치통제구도를 구축했다. FLN은 1963년 헌법에서 “유일한 선도 정당(the sole avant-garde party)”이었다.⁵⁶⁾ 부테플리카 시대까지 FLN이 배출한 알제리 대통령은 벤 벨라와 부디아프(Mohammed Boudiaf)를 제외하고 모두 20년 이상 군 복무경력을 가진 장군 출신이었으며, 현실정치의 서열은 군 조직의 서열대로 결정됐다.⁵⁷⁾

물론 선봉주의적 정치문화 전파는 유럽 패권에 의해 시작됐다. 19세기 말 이후 프랑스 식민 정책은 “문명화 사명(mission civilisatrice)”을 기치로 진행됐으며, 이는 “제2차 대전 이후에도 지속되었다.”⁵⁸⁾ 문명화 사명에 따르면 알제리-지정학적·정치문화적 차원에서 사이드(Edward Said)식(式) 동양(東洋)의 일부-는 정복되어야 할 땅이었다. 문화적 관점에서 알제리는 식민모국(métropole)으로서 프랑스 문화가 지니는 ‘따분함(ennui)’을 날려줄 수 있는 이국적 장소이기도 했다. 문명적 사고는 알제리 원주민, 무슬림들이 겪고 있던 어려움에 비교적 동정적이었던 소위 알제리학과(École d’Alger)에게서도 포착된다. 카뮈(Albert Camus), 클로(René-Jean Clot) 같은 휴머니스트들에게서도 알제리 독립의 합법성과 불가피성의 설파는 찾기 어렵다. 그들의 작품 또한 “가혹한 식민지배 현실을 모호하게” 그려낸 것이었고, 이는 결국 “프랑스·유럽 문명의 우월성에 관한 내재적 암시”와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⁵⁹⁾

54) Djamila Ould Khettab “‘Total Fiasco’: Algeria Student Protesters Rally against Election,” *Al Jazeera*, <https://www.aljazeera.com/news/2019/12/fiasco-algeria-student-protesters-rally-election-191210161051543.html> (검색일: 2020.1.6.);

Hamid Ould Ahmed and L. Chikhi. “Algerian Protesters Rally as Vote Goes Ahead,” *Reuters*. <https://af.reuters.com/article/topNews/idAFKBN1YG1P0-OZATP> (검색일: 2020.1.6).

55) Ghanem-Yazbeck (2018).

56) 2016년 개정된 헌법에서도 군의 위상 및 역할은 전문(前文)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57) Yolcu (2019), pp. 1041-1042.

58) 양재혁 (2016), p. 268.

59) Neil MacMaster, “Review Essay: Writing French Algeria,” *FCS* 11 (2000), pp. 153-154.

한편 선봉주의는 복합적 정치문화를 배태하는, 그러나 동시에 주류 정치문화에서 배제되는 집단을 양산했다. ‘점령지’ 알제리에 정착한 피에누아(Pieds-Noirs)가 대표적이다.⁶⁰⁾ 그들은 현지에서 식민모국으로부터 특권을 누리면서 강력한 집단 동류의식을 형성함과 동시에 프랑스 정부와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병력 부족에 시달리던 프랑스 정부가 1908년 징병 범위를 알제리 무슬림들로 확대하려 하자 피에누아들이 해당 정책에 극렬하게 반대한 것이 하나의 예다. 20세기 전반기 알제리 민족주의가 부상하면서 유럽 출신 정착민들과 현지인들 간 긴장이 고조되던 시점에서 알제리인들에게 군사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3년 간 지속된 피에누아들과 프랑스 정부와의 갈등은 제2차 대전이 종식된 후까지도 이어졌으며 이는 ‘프랑스령 알제리’가 담지하는 복합적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⁶¹⁾ 결국 피에누아의 관점에서 드골의 정책은 자신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었다.

아르키(Harkis) 문제도 마찬가지다.⁶²⁾ 프랑스에 의해 사용된 무슬림들은 전쟁 후 프랑스로 건너갔지만 정부에 의해 방치되었고, 인권 사각지대로 몰렸다. 알제리 국내에 남은 아르키들은 즉결 처형되거나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불법적 응징에 시달렸다. ‘민족 반역자들’에 대한 무조건적 응징은 프랑스 제국에 의한 선봉주의적 문화침탈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성찰의 가능성마저 단아버렸다.⁶³⁾ 피에누아 및 아르키에 대한 알제리 정부의 대응은 선봉주의로 점철된 유럽의 그것 이상이었다. 프랑스 사회문화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브룩너(Pascal Bruckner)는 “[알제리에 대한 프랑스의 사과만큼이나] 알제리 정부가 그의 동족들과 알제리 내 프랑스인에게 행했던 범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언급했다.⁶⁴⁾

‘프랑스령 알제리’ 담론은 ‘알제리령 알제리’ 담론과 연동되고, 나아가 현대 알제리 정치문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독립 직후 프랑스와 유럽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

60) 피에누아(Pieds-Noirs). ‘검은 발’이라는 뜻이다. 프랑스의 알제리 점령 시기(1830-1962) 알제리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 및 유럽출신 후손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달리 말하면 식민모국인 본국(프랑스)을 모르는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인인 셈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알제리가 독립을 성취한 이후 프랑스로 돌아갔다.

61) Barclay et al. (2018), pp. 115-130.

62) 콜린스 프랑스어 사전(Collins French Dictionary)은 아르키를 “알제리 독립전쟁(프랑스-알제리 전쟁)에서 프랑스를 위해 싸운 알제리 군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랍어로는 ‘haraka(حركة)’로 표기한다. 실제로 아르키에 대한 정의는 다소 모호하다. 때에 따라 ‘전쟁 시기 프랑스에 충성을 다했던 무슬림’ 전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쓰인다. 아르키의 더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노서경, “하르키(Harkis) 문제: 사라진 증언들,” 『Homo Migrans』, 2 (2010), pp. 23-25 참조.

63) 노서경 (2010), pp. 47-48.

64) Samuel (2018).



로 했던 것은 알제리였다. 피에누아들이 떠난 알제리에 경제, 교육, 산업시설을 경영할 수 있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독립 5개월여 만인 1962년 12월 유럽경제공동체(EEC)와의 관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제안한 것 또한 초대 대통령 벤 벨라였다. 한편 당초 알제리를 EEC에 포함시키려 한 것은 프랑스였다. 알제리 독립을 내심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프랑스가 유럽-아프리카주의(Eurafrique)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⁶⁵⁾ 이후 ‘알제리령 알제리’는 아랍화의 길을 걸었지만, 실제 권력 내부에서 작동하는 정치문화는 여전히 ‘프랑스령 알제리’와 가깝다. 알제리 내 이슬람 전통주의자들은 맑시즘과 사회주의적 정향을 보인 정부에 반기를 들었지만 돌아온 것은 탄압이었다.⁶⁶⁾ 21세기 알제리를 이끈 지도자 부테플리카 역시 프랑스 배후에서 성장했다.⁶⁷⁾ 프랑스와 알제리의 관계는 언제나 ‘비범(非凡)’했으며,⁶⁸⁾ 해당 지역 정치문화는 중첩적 선봉주의로 점철되었다.

IV. 알제리 정체성: 분석적 적용

국제정치이론의 문화담론은 알제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동시에 알제리가 겪고 있는 복합적 정체성은 국제정치의 분석도구로서 문화담론이 수행하는 독특한 역할을 보여준다. 오늘날 알제리는 적어도 단위국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미 있는 수준에서의 “집단의 기억(collective memory)”이 결여되어 있다. 대신 상술한 바와 같이 알제리령 알제리와 프랑스령 알제리 간의 정체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알제리 정체성 형성에 있어 “기억의 구성(memory construction)”은 자아와 타자 간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이나 기억과 망각이 교차하는 양상을 보인다.⁶⁹⁾ <그림 1>은 제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알제리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담론들을 이념별로 도식화한 것이다.

65) Megan Brown, “Drawing Algeria into Europe: Shifting French Policy and the Treaty of Rome (1951-1964),” *Modern & Contemporary France* 25-2 (2017), pp. 191-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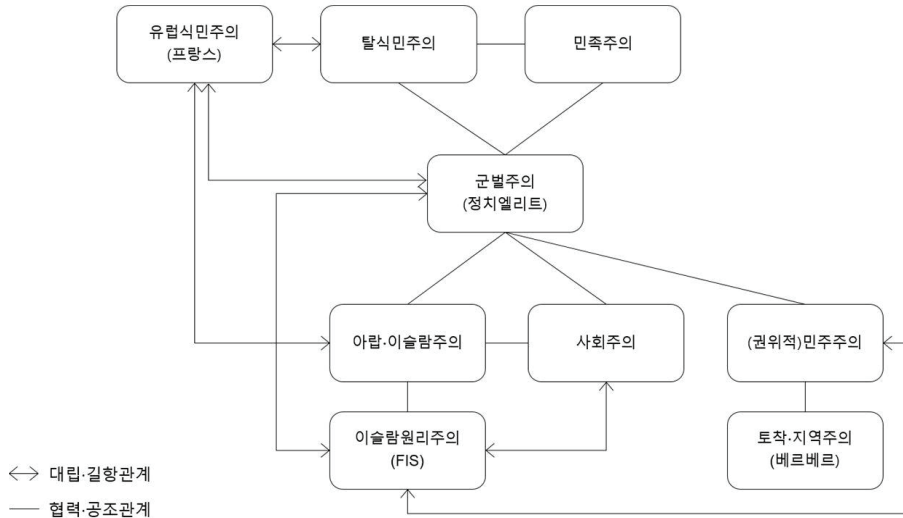
66) James McDougall, “Culture as war by other means: Community, Conflict and Cultural Revolution, 1967-1981,” in Rabah Aissaoui and Claire Eldridge (eds.), *Algeria Revisited: History, Culture and Identity* (New York: Bloomsbury, 2018), p. 240.

67) 임기대 (2019), pp. 431-458.

68) 김태수 (2016), p. 279.

69) Aissaoui and Eldridge (2018), pp. 1-4.

<그림 1> 알제리 문화담론 (이념적 분포)⁷⁰⁾



상기의 분석이 제공하는 이론적·분석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알제리 사례는 정치문화(문명) 단위로서의 국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 ‘단위적(unitary) 혹은 분리적(separable) 접근’이 지닌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국가를 국제정치的主要 행위자로 두고 정치문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 이들을 하나의 분석틀 또는 ‘단위’로 환원시킬 경우 해당 정치문화를 구성하는 각기 다른 ‘주체’들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⁷¹⁾ 알제리 군부정권은 ‘아랍·이슬람주의-사회주의’의 공존이라는 기형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1970년대 현대 알제리 역사의 “황금기(golden age)”를 창출했다.⁷²⁾ 그러나 탈냉전 시기 진행된 민주화는 역설적이게도 이슬람 정당의 부상으로 이어졌고, 이는 군벌주의와 이슬람(원리)주의 간 직접적 충돌로 인한 내전으로 귀결됐다.

반면 ‘암흑의 10년’을 걷어내고 사회 안정을 회복한 것은 공교롭게도 시민-군이 결

70) 본 그림은 각 담론이 지니는 관계를 개괄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최종적 관계가 아님을 밝힌다. 실제 담론 간 구도는 사안에 따라 대립·길항 관계와 협력·공조 관계가 복합적 형태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군벌주의는 유럽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의 결과 부상했지만, 알제리 정치엘리트들이 프랑스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베르베르주의 역시 1990년대 다당제 도입 이래 보다 적극성을 띄었지만 정부(권위적 민주정부)와의 관계 측면에서는 여전히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71) 도종윤, “국제정치학에서 주체 물음: 해석학적 접근을 위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53-4 (2013), pp. 39-78.

72) McDougall (2018), p. 238.



탁한 형태의 기형적 민주주의 구조를 지속해온 부테플리카 정권이었다. 알제리 국민들은 2000년대 부테플리카에 전면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2010년대 후반 이후 군의 전면 퇴진과 통치능력의 완전한 민간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 역시 군사정권이 정당성 제고를 위해 흔히 활용해 오던 ‘헌법’을 통해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⁷³⁾ 다시 말해, 알제리 정치문화를 구성하는 각 주체는 정체성의 변화를 끊임없이 동반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그들이 담지해온 정치문화 역시 변화 양상을 노정했다. 알제리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세계 최대 아랍국가’이지만, 정치문화 관점에서 알제리 정체성은 단위 구조로 쉽게 환원될 수 없다.

둘째, 연관된 문제로서, 알제리 정치문화는 전통적 문화담론 유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알제리 정치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집단적 정체성이 부재하다. 군부정권은 “진정한 알제리의 근대성(authenticity Algerian modernity)”이 아랍과 이슬람의 두 축에 놓여 있다고 했지만,⁷⁴⁾ 이러한 언명(言明)은 상술한대로 패권적·강압적 통치 방법에 따른 기만적 정체성에 불과했다. 이리에의 표현대로 국가 정체성을 “문화적 체계(cultural system)”라고 한다면 알제리 정체성은 ‘문화적으로 억눌린(culturally oppressed)’ 체계로 볼 수 있다.⁷⁵⁾ 문화를 사회, 경제, 군사제도 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는 시각도 알제리에서만은 적용되기 어렵다.⁷⁶⁾ 현대 알제리 정치문화는 탈식민주의의 기치 아래 형성된 군벌주의에 의해 형성되었다. ‘문화-사회구조 간 상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알제리의 경우는 주로 후자가 전자를 추동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셋째, 외교·전략적 요소를 문화담론과 연동하는 관점에서도 알제리는 여전히 정체성 정립 과정의 초입 단계에 놓여있다. 재차 강조하건대 알제리 정치의 불안정성은 탈식민주의, 군벌주의 및 권위주의, 민주주의, 아랍·이슬람주의, 토착·지역주의 등의 상호-혹은 동일 이데올로기 내 다른 세력 간의-길항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고, 정치문화의 복잡성은 알제리의 외교·전략적 정치문화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가늠하기 어렵게 한다. 물론 이 문제를 알제리에만 특정할 수는 없다. 이념적 측면만 놓고 본다면 케냐의 경우와 같이 다자주의(multilateralism) 및 범아프리카주의가 부족주의(tribalism)적 이익 확장을 위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⁷⁷⁾ 부족주의와 지역주의, 다자

73) 2019년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시민의 주권(constituent power and sovereignty)을 규정한 헌법 제8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밖에 Yolcu (2019), p. 1042 참조.

74) McDougall (2018), p. 240.

75) Akira Iriye, “Culture and Power: International Relations as Intercultural Relations,” *Diplomatic History* 3-2 (1979), pp. 115-128.

76) Michael J. Mazarr, “Cultur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 Review Essay,” *The Washington Quarterly* 19-2 (1996), pp. 177-197.

주의, 국제주의적 요소가 일관되지 못한 방향으로 뒤섞이는 것이다.

알제리의 경우 냉전기 비동맹, 사회주의적 이념 정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교류를 비밀리에 지속했고, 이미 부메디엔 시기인 1974년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부테블리카 시기에는 미국과의 군사협력 또한 상대적으로 활발해졌으며 이는 범사하라 대테러 파트너십(Trans-Saharan Counterterrorism Initiative: TSCTP)으로 구체화되었다.⁷⁸⁾ 포스트 부테플리카 시대 알제리 정치의 향방은 현재도 묘연하지만, 민주화 담론이 시민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우려 또한 감지된다. 군 중심 정치체제의 현상유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민주화 운동이 아랍의 봄과 같은 이슬람 세력 발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사실상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⁷⁹⁾ 외교전략 뿐만 아니라 정치형태로서의 현상유지(diplomatic status quo)는 알제리 군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⁸⁰⁾ 결국 민간정부와 군, 정보안보부(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Security, DRS) 간 형성된 사실상의 연정(聯政) 구도가 정치문화의 모호성을 지속하는 동력이다. 실용주의라면 실용주의적인 정치문화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영국학과의 언어를 차용하면 알제리 정치문화는 선봉주의로 점철되었다. 통합주의적 시각은 결여됐다. 선봉주의 역시 단선적이 아니라 중첩적이었다. 프랑스 식민지배로부터 비롯된 문화적 제국주의에 더해 독립 이후 알제리 내부에서 군벌주의, 사회주의, 아랍주의, 이슬람주의에 따른 패권적 문화정책이 시행됐다. 민주주의 발현에 따라 등장한 이슬람주의는 군벌주의와 권위주의에 의해 강압적으로 묵살됐고, 대신 권위적 민주주의가 부상했다. 토착주의(지역주의)는 억눌렸고, 프랑스령 알제리의 후유증

77)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은 케냐 최대 인종 키쿠유(Kikuyu) 출신이다. 2007년 총선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살인·폭력 사태의 책임자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2013년 대선을 계기로 케냐타 정부는 ICC 인권침해 반인도범죄 공소 기각을 위해 범아프리카주의를 적극 활용하였다. 우간다 출신 저명 언론인인 오냥고 오보(Charles Onyango-Obbo)는 케냐의 반(反)ICC 정책을 두고 “지금까지 케냐가 추구한 정책 중 가장 범아프리카주의적인 것”이라고 빗대어 표현했다. Faith Maberu, “Kenya’s Foreign Policy in Context (1963-2015),” *South Af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3-3 (2016), pp. 365-384 참조.

78) 김태수, “2001년 이후 알제리-미국관계: 지속성과 변화,” 『국제지역연구』 18-4 (2014), pp. 119-138.

79) 부테플리카 시기 알제리-미국 관계가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알제리-러시아 관계를 능가할 수준은 아니다. 이를테면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알제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의 66%가 러시아산이었으며, 군수산업에 있어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러시아 최대 고객이다. Samuel Ramani, “Russia’s Cautious Calculus in Algeri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2 March 2019. <https://carnegieendowment.org/sada/78667> (검색일: 2020.1.28) 참조.

80) Francis Ghilès and Akram Khariief, “Updating Algeria’s Military Doctrine,” *Middle East Institute*. 6 June 2017. <https://www.mei.edu/publications/updates-algerias-military-doctrine> (검색일: 2020.1.28).



으로 탄생한 피에누아 및 아르키 등 다수의 정체성은 압제아래 놓였다. 문화적 제국주의는 또 다른 문화적 제국주의를 낳았고 이는 담론적 다양성을 아우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치문화의 부재로 이어졌다.

V. 결론

알제리 문화는 복합적, 길항적, 모순적이다. ‘유라프리카(Eurafrica)’로 대표되는 프랑스령 알제리와 ‘마그레브(Maghreb)’로 이어지는 알제리령 알제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어렵다. 정권은 혼합된 이데올로기 형태로 유지되었고, 정부가 추구하는 권위적 문화와 지역문화(베르베르주의)는 충돌했다. 독립 후 6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둘러싼 담론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알제리에서 정권에 의해 강제되어온 역사적·문화적·정치적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시민투쟁(Hirak)’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⁸¹⁾ 결국 오늘날 알제리의 정치문화는 ‘다원적 시민사회의 (정제되지 않은) 열망’으로 대변된다.

독립 이후 알제리에서 문화담론은 “정치수단으로서의 투쟁(culture as war by other means)”이었다.⁸²⁾ 알제리 현대 정치문화는 탈식민주의와 민족주의를 토대로 구성되었지만, 양자 모두 정치엘리트들의 이익을 위해 패권적이고 선봉주의적인 문화담론을 조장하는 도구로 전략하고 말았다. 이는 탈식민주의 관점에 의거해 국제관계를 구성하고자 하는 소위 비서구 국가들이 염두에 뒤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알제리뿐 아니라 독립 이후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많은 국가들에게 식민성(coloniality)의 극복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알제리 사례는 반(反)서구적 담론이 권위적·패권적으로 활용되는 ‘탈식민성(post-coloniality)’에 대한 극복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본고는 알제리 정체성을 거시적이면서도 동시에 중범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간 국제정치 주류이론들에 의해 객체화되어 온 마그레브 지역의 국가 정체성 분석 양태에 대한 인식론적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국가 정체성 측면에서 알제리가 내포하는 지정학적 의미를 문화담론과 연계함으로써 국제정치에서 문화담론 분석의 지속 필요성을 상기하였다. 나아가 알제리 정체성 분석사례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공공외교 효과성을 향상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공공외교의 규범성 제고와 실질

81) John P. Entelis, “Book Review. Algeria Revisited: History, Culture and Identity,”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133-565 (2018), pp. 1658-1659.

82) McDougall (2018), p. 235.

적 공공성 강화, 지속 가능성 구축 등은 상호주체적이며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추상적이고 몰지역적인 기존 아프리카 연구 관습으로는 공공외교 대상국가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문화담론에 대한 종합적 이해 없이는 국제관계에 대한 전체론(全體論)적 분석이 요원하다는 점, 관련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외교정책(공공외교 포함)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문화담론을 포함한 ‘해석적 포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정치문화 자체는 어디까지나 제도·규범적 맥락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인과적이라기보다는 부분적 설명임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⁸³⁾

83) 김성수 (2019), p.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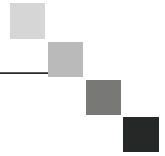
참고문헌

- 김광수. “프랑스어권 알제리 베르베르(Berber)인의 민족적 정체성의 맥락화 고찰: 마투브 루네스(Matoub Lounès)의 노래에 나타난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의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연구』 제40권 (2019).
- 김성수.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교정치』. 서울: 박영사, 2019.
- 김태수. “2001년 이후 알제리-미국관계: 지속성과 변화.” 『국제지역연구』 제18권 4호 (2014).
- 김태수. “프랑스-알제리 관계: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프랑스학연구』 제75권 (2016).
- 노서경. “하르키(Harkis) 문제: 사라진 증언들.” 『Homo Migrans』 제2권 (2010).
- 도종윤. “국제정치학에서 주제 물음: 해석학적 접근을 위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제53집4호 (2013).
- 알렉산더 웬트, 박건영 · 이옥연 · 구갑우 · 최종건 역.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구성주의』. 서울: 사회평론, 2009.
- 양재혁. “제3공화국 이전 프랑스의 알제리 ‘연합’ 식민 정책에 대한 소고: 바르텔레미 앙팡탱(Barthelemy Enfantin)의 알제리 식민 이론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제131권 (2016).
- 은용수. “‘비주류’ IR 이론과 한국의 국제정치문제: 탈식민주의를 향한 재조명, 탈식민주의를 통한 재구성.” 『국제정치논총』 제56집3호 (2016)
- 이용재. “드골과 알제리 독립,” 『프랑스사 연구』 제27권 (2012).
- 임기대.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베르베르(Berber) 정책이 마그레브 지역의 문화 변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53권 (2018).
- 임기대.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중병과 퇴진 그리고 알제리 정치 체제에 남겨진 문제에 관한 연구.” 『프랑스문화연구』 제41권 (2019).
- 전재성. “탈식민 국제정치학 이론과 한국.” 『국제정치논총』 제59집4호 (2019).
- 최정운. “문화와 권력.” 『세계정치 7』 제28권1호 (2007).
- 알제리 헌법 (1963, 1976, 1989, 1996 and 2016).
- Abdelal, Rawi, Yoshiko M. Herrera, Alastair Iain Johnston and Rose McDermott. “Identity as a Variable.” *Perspectives on Politics* 4-4 (2006).
- Adler, Emanuel. “Seizing the Middle Ground: Constructivism in World Politics.” *European*

-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3-3 (1997).
- Almond, Gabriel A. "Comparative Political System." *Journal of Politics* 18-3 (1956).
- Aissaoui, Rabah and C. Eldridge (eds.). *Algeria Revisited: History, Culture and Identity*. New York: Bloomsbury, 2018.
- Azikiwe, Abayomi. "Looking Back to Move Forward: The First Pan-African Cultural Festival in Algeria, 1969." *Global Research*. <https://www.globalresearch.ca/first-pan-african-cultural-festival-algeria-1969/5688025> (검색일: 2020.1.6).
- Barclay, Fiona, C. A. Chopin and M. Evans. "Introduction: Settler Colonialism and French Algeria." *Settler Colonial Studies* 8-2 (2018).
- Bonnot, Virginie, S. Krauth-Gruber, E. Drozda-Senkowska and D. Lopes "Emotional Reactions to the French Colonization in Algeria: The Normative Nature of Collective Guilt." *Social Science Information* 55-4 (2016).
- Bouandel, Youcef. "Political Parties and the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ism: The Case of Algeria."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41-1 (2003).
- Brown, Megan. "Drawing Algeria into Europe: Shifting French Policy and the Treaty of Rome (1951-1964)." *Modern & Contemporary France* 25-2 (2017).
- Buzan, Barry. "Culture and International Society." *International Affairs* 86-1 (2010).
- Buzan, Barry and R. Little "The Historical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ciety." In C. Navari and D. M. Green (eds.), *Guide to the English School in International Studies*. Chichester: Wiley Blackwell, 2014.
- Checkel, Jeffrey T. "The Constructive Turn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orld Politics* 50-2 (1998).
- Diez, Thomas, Ingvild Bode, and Aleksandra Fernandes da Costa. *Key Concep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SAGE, 2011.
- Entelis, John P. "Book Review. Algeria Revisited: History, Culture and Identity."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133-565 (2018).
- Ghanem-Yazbeck, Dalia. "Are Bouteflika's Shake-Ups a Sign of Shifting Civil-Military Ties in Algeria?" *World Politics Review*. <https://www.worldpoliticsreview.com/articles/26763/are-bouteflika-s-shake-ups-a-sign-of-shifting-civil-military-ties-in-algeria> (검색일: 2020.1.6).
- Ghilès, Francis and A. Kharief. "Updating Algeria's Military Doctrine." *Middle East Institute*. <https://www.mei.edu/publications/updating-algerias-military-doctrine> (검색일: 2020.1.6).



- Gulshan, Bobby. "Reckoning with Darkness: Looking Back on Algeria's Dark Decade." *Al Jadid: A Review & Record of Arab Culture and Arts*. <https://www.aljadid.com/content/reckoning-darkness-looking-back-algeria%E2%80%99s-dark-decade> (검색일: 2020.1.6).
- Haleh Davis, Muriam. "Algeria: The Army, the People, and the Three Bs." *Al Jazeera*. <https://www.aljazeera.com/indepth/opinion/algeria-army-people-bs-190416162721661.html> (검색일: 2020.1.6).
- Hall, Stuart and P. Du Gay (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London: SAGE, 1996.
- Harshe, Rajen. "Culture, Ident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41-37 (2006).
- Heywood, Andrew. *Political Ideologies: An Introduction*. Palgrave Macmillan, 2012.
- Hitchens, Christopher. "A Chronology of the Algerian War of Independence." *The Atlantic*. <https://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2006/11/a-chronology-of-the-algerian-war-of-independence/305277/> (검색일: 2020.1.6).
-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Touchstone, 1996.
- Iriye, Akira. "Culture and Power: International Relations as Intercultural Relations." *Diplomatic History* 3-2 (1979).
- Johnston, Alastair Lai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Katzenstein, Peter J.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 Kawamura, Yoko. "Methodological Duality and Conceptual Plurality of Cultur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owards Collaboration of Cultural Policy Research and International Relations." *Bulletin of the Faculty of Humanities, Seikei University* 51 (2016).
- Larrain, Jorge. *The Concept of Ideology*. London: Hutchinson, 1979.
- Mabera, Faith. "Kenya's Foreign Policy in Context (1963-2015)." *South Af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3-3 (2016).
- Mazarr, Michael J. "Cultur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 Review Essay." *The Washington Quarterly* 19-2 (1996).
- MacMaster, Neil. "Review Essay: Writing French Algeria," *FCS* 11 (2000).
- McDougall, James. *History and the Culture of Nationalism in Algeria*. Cambridge: Cam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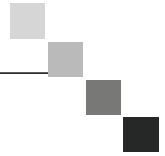
- University Press, 2008.
- McDougall, James. "Culture as War by Other Means: Community, Conflict and Cultural Revolution, 1967-1981." in R. Aissaoui and C. Eldridge (eds.), *Algeria Revisited: History, Culture and Identity*. New York: Bloomsbury, 2018.
- Mortimer, Robert A. "The Algerian Revolution in Search of the African Revolution."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8-3 (1970).
- Norris, Christopher. "Culture, Criticism and Communal Values: On the Ethics of Enquiry," In B. Adam and S. Allan (eds.), *Theorizing Culture: An Interdisciplinary Critique after Postmodernism*. London: UCL Press, 1995.
- Ould Ahmed, Hamid and L. Chikhi. "Algerian Protesters Rally as Vote Goes Ahead." *Reuters*. <https://af.reuters.com/article/topNews/idAFKBN1YG1P0-OZATP> (검색일: 2020.1.6).
- Ould Khettab, Djamilia "Total Fiasco': Algeria Student Protesters Rally against Election." *Al Jazeera*. <https://www.aljazeera.com/news/2019/12/fiasco-algeria-student-protesters-rally-election-191210161051543.html> (검색일: 2020.1.6).
- Peoples, Columba and Nick Vaughan-Williams. *Critical Security Studies: An Introduction*. Oxon: Routledge, 2015.
- Pithouse, Richard. "Why Fanon Continues to Resonate More Than Half a Century After Algeria's Independence." *The Conversation*. 5 July 2015. <https://theconversation.com/why-fanon-continues-to-resonate-more-than-half-a-century-after-algerias-independence-43508> (검색일: 2020.1.28).
- Rachman, Gideon. *Easternisation: War and Peace in the Asian Century*. London: Bodley Head, 2016.
- Ramani, Samuel. "Russia's Cautious Calculus in Algeri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s://carnegieendowment.org/sada/78667> (검색일: 2020.1.6.).
- Salah Tah, Mohand "The Arduous Democratisation Process in Algeria."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30-3 (1992).
- Samuel, Henry. "France May Have Apologised for Atrocities in Algeria, But the War Still Casts a Long Shadow." *The Telegraph*. 15 September 2018.
- Taylor, Ian. *African Politics: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Trachtenberg, Mark. *The Craft of International History: A Guide to Metho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 Turshen, Meredith. "Militarism and Islamism in Algeria."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39-1/2 (2004).

Wiarda, Howard J. *Culture and Foreign Policy: The Neglected Factor in International Relations*. Oxon: Routledge, 2016.

Yolcu, Furkan Halit. "The Democratizer Army Paradox: The Role of the Algerian Army in Impeded Democratization."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54-7 (2019).



ABSTRACT

Rewriting the Algerian Cultural Discourse in IR

Yoon, Seongwon / Hanyang University

Kim, Sungsoo / Hanyang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reflect upon the Algerian identity with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IR). The conceptual and analytical framework consists of culture, ideology, and history. The reason for analyzing the Algerian cas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lgerian case challenges the dominant epistemology in IR in which non-European countries have been largely objectified. Moreover, it problematizes the material and structure-centered approach that has long been central to IR thereby sheds light on the necessity of cultural turn in IR. Second, the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Algeria show that the Algerian political culture is closely related to the chang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It is in this respect that memories by which Algerian national identity is formed have been blocked, manipulated, and obligated by political elites. In short,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ultural discourse and the interpretive comprehensiveness are critical to a holistic approach to IR.

Key words: International Relations, Cultural Discourse, Algeria, Identity,
Political Ideology

※ 접수일: 2020년 02월 20일, 심사일: 2020년 03월 23일, 게재확정일: 2020년 03월 23일

